

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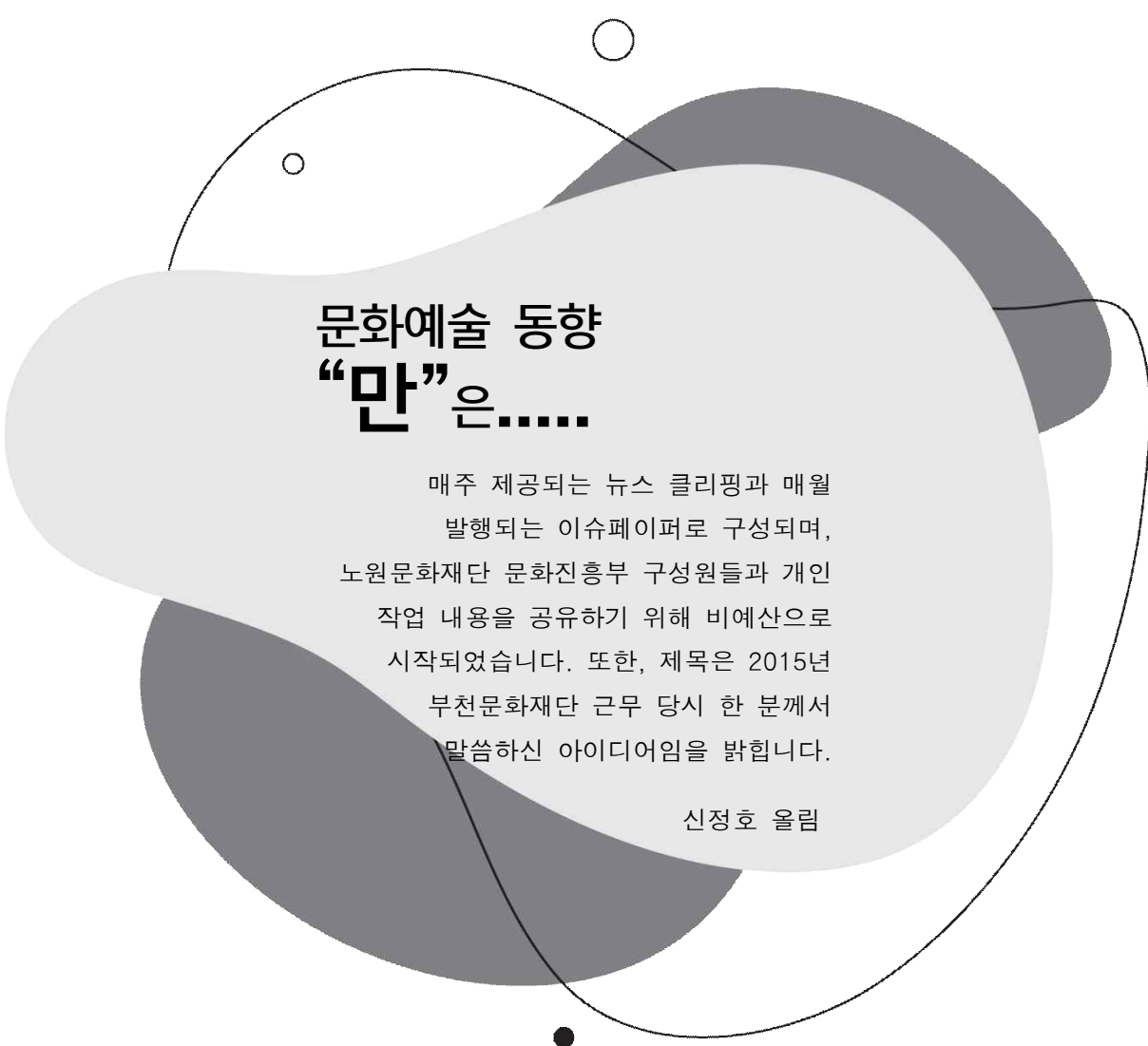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2025.11.24.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문화예술 동향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개인 작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주요목차

(제37호) AI에 쏠린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1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4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7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10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13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16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19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22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25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 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28
(제27호)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31
(제26호)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34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37
(제24호) K컬처 30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40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43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46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49
(제20호) 문화예술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52
(제19호) 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55

주요목차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58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61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64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67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70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73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76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79
(제10호)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82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84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86
(제07호)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88
(제06호) 티켓플랫폼·선우려속공연·장소·장·구제·미술·장·우류·인·기·구·중·로·문·화·부·지·민·간·교·차·는·자·체	90
(제05호) 초개인화·AI 확산·경제 위기 속에서 역할 재정립과 지속가능 증진의 정책 전환을 요구받는 문화예술계	93
(제04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95
(제03호)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97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99
(제01호) '문화한국2035' 발표 속 문화예술지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제 중단 위기	101

(제37호) AI에 쏠린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정부 2026년 예산은 AI·R&D에 집중되지만, 문화·돌봄·지역 정책은 소외되고 있다. 경기도 문화예산 삭감,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역 문화생태계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로움·기후위기 대응도 미흡하다. 성장 일변도 '몰빵'이 아닌 문화와 돌봄, 지역을 아우르는 균형 전략이 시급하다.

- AI 몰빵 속 문화·돌봄 예산 소외로 공공성과 재정 지속성 우려
 - AI에 '몰빵'한 이재명표의 26년 예산안 10조와 돌봄의 777억이 교차한 질문(르몽드코리아, 2025.11.20.)
 - 26년 예산 728조 중 AI 10조·R&D 35조 집중, 통합돌봄은 777억 그쳐 초부자 감세와 재정 지속성 우려
 - 문체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1.17.)
 - 문체위, 2026 예산안 의결...문체부 5,813억·유산청 1,367억 증액, 지역문화 예산 미회복
- 경기 문화예산 대폭 삭감과 행정 혼선으로 예술인 지원 축소, 지역 문화생태계 붕괴 우려
 - 황대호 의원 "조례 43%가 예산 0원"...문화체육관광국 질타(이뉴스투데이, 2025.11.19.)
 - 황대호 의원 조례 43% 예산 미반영·공공체육시설 0원·850억 감액으로 문화권 위축
 - 예산·인사·사업... 경기문화재단 곳곳서 이상 기류 감지(중부일보, 2025.11.16.)
 - 안중근 유목 구입 논란 후,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삭감·보직 공석·문화계 반발 성명
 - 경기민예총 "예술인기회소득 53% 삭감...도 문화생태계 붕괴"(경기신문, 2025.11.19.)
 - 경기민예총 2026년 예술인기회소득 53% 삭감 규탄...문화생태계 붕괴·예산 복구 촉구
- 재정분권 가속 속 부산 문화자치 조례 제정...중앙의존 탈피·예술행정 독립 강화
 - 윤호중, 지방자치 비전 발표..."국가사무 지방 이양·재정분권 7대3 목표"(파이낸셜뉴스, 2025.11.19.)
 - 국가사무 지방이양 재정분권 가속·국세·지방세 7:3 목표, 사무비중 국가63.3%·지방36.7% 중앙집중 완화 추진
 - 부산시의회 부산 문화정책 결정은 부산시민으로 부터, 정채숙 부산시의원,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정(더시그널뉴스, 2025.11.19.)
 - 예술위 20년 정치개입 재정의존·장르이기주의로 독립성 약화...근본적 개선 필요
- 재정난에 멈춘 문화·체육시설...관객 이탈 속 지역 문화생태계 어려움 봉착
 - '재정난에 멈춘 체육·문화시설'.. '탈세종' 못막는 세종(TjB, 2025.11.18.)
 - 세종시 재정난 심화로 체육·문화시설 중단, 세수 감소와 부채 증가로 도시 성장 정체
 - 관객은 왜 소극장을 외면하는가(영남일보, 2025.11.17.)
 - 대구 소극장은 예산 삭감·관객 감소로 위기, 창작·홍보·교류 플랫폼 마련 시급
- 혐오 대응 민주시민·디지털 시민성 강화...차별금지법 추진과 문화시민 교육 확대
 - "혐오 노출 막자" 교육부, 내년 1월 민주시민교육과 부활(오마이뉴스, 2025.11.21.)
 - 교육부 내년 1월 민주시민교육과를 부활하고, 극우·혐오 방지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계획
 - "18년 미뤄온 차별금지법, 더는 늦출 수 없다"... 정춘생, 22대국회 첫 발의 예고(오마이뉴스, 2025.11.16.)
 - 정춘생 의원 22대 국회서 차별금지법 첫 발의 예고...성별·장애·성적지향 등 복합차별 금지
 - 도시를 '산책'하는 문화시민은 왜 필요한가... '제2회 인문도시 세미나' 개최(경인일보, 2025.11.16.)
 - 문화도시 시민의 참여적 문화 역량이 핵심이며, 문화교육을 통해 도시를 능동적으로 읽는 문화시민을 길러야
 -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중요하다(한국교육신문, 2025.11.17.)
 - AI 시대에 책임·윤리·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학교 전반에 강화
- 외로움 대유행 속 시니어 문화예술 확대...사회적기업 지원은 성과 논란
 - '외로움의 시대', 이대로 놓아둘 순 없다(중앙일보, 2025.11.17.)
 - 국민 38.2%가 외로움 느끼며, 고립 위험군은 3.3%.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으로, 정부·시민사회·개인 모두의 대응 필요
 - "사회적 기업에 언제까지 퍼주나"...성과 없는데 예산 4배 늘려(매일경제, 2025.11.17.)
 - 사회적기업 47% 적자 속 정부 지원예산 284억→1,180억 4배 증액 성과·의존 논란
 - 다채로워지는 시니어 아마추어 예술인 공연...지자체도 지원 확대(뉴스사천, 2025.11.21.)
 - 시니어 아마추어 예술인 공연이 확산되며, 지자체가 문화예술 복지 지원을 확대
- 기후행동 나선 K팝 팬들...한국 기후대응 최하위, 지역축제 탈탄소 전환 시급
 - 유엔 기후총회서 K팝 팬들도 목소리...문화분야 탈탄소화 촉구(연합뉴스, 2025.11.19.)
 - K팝 팬들이 COP30에서 문화 분야 탈탄소화를 촉구하며 기후행동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
 -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세계 최하위 수준'...부족한 건 '목표가 아니라 실행'(경향신문, 2025.11.19.)
 - 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64개국 중 60위...재생에너지 부족·실행력 미흡으로 최하위권
 - "귀한 예산으로 쓰레기 만드는 지역 축제"... 환경단체 쓴소리(오마이뉴스, 2025.11.19.)
 - 충남 예산·홍성 환경단체 지역축제 일회용품 사용 규탄...다회용기 도입 예산 낭비 지적
 - 2025년 ESG 소비 트렌드 결산 : '진정성과'와 '그린워싱'사이, Z세대가 시장을 재편하다(KBR, 2025.11.18.)
 - Z세대 중심으로 ESG 가치 소비가 확산되지만, 그린워싱 우려로 'ESG 피로도'가 높아
- 문화기관 인사·운영의 불투명성과 권한 집중에 대한 구조적 비판과 쇠신 요구
 - [내일을 열며] 20주년 맞은 예술위의 현재(국민일보, 2025.11.20.)

- 예술위 20주년 팔길이 원칙 무색...정치 개입·문체부 재정 의존·장르 이기주의 비판
- 통합이 오히려 '독'됐다...대구 문화·예술 쇠신 필요(국민일보, 2025.11.18.)
 - 원장 측근 승진 내규 변경, 직속 TF 구성, 과도한 수당 지급, 왜곡된 인사 구조 등 논란
- 국내체류 동포 예술인 배제는 차별...문학인 노동가치 인정·요구
 - 인권위 "국내체류 동포 예술인 지원 배제한 것은 차별"(연합뉴스, 2025.11.17.)
 - 인권위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 예술인 지원 배제는 차별이라 판단, 제도 개선 권고
 - 정부가 문화예술 영역에서 종사자들에게 노동의 댓가를 공평하게 펼쳐주는가?(local세계, 2025.11.18.)
 - 정부는 문학인 노동 가치 인정·출판비 지원·독서운동 장려로 문화 균형 발전 필요
- 독일 산업유산 재생 모델...엘브필하모니·졸버레인, 문화관광 혁신 이끈 랜드마크
 - '세계 100대 명소' 엘브필하모니, 2600만명이 방문한 매력은?(한국경제, 2025.11.19.)
 - 엘브필하모니는 10년간 건립된 함부르크의 랜드마크로 2,600만 관광객과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한 세계적 음악 명소
 - "철거 대신 재생... 지속 가능한 폐광 해법"(강원일보, 2025.11.18.)
 - 독일 에센 졸버레인 폐광 후 산업유산 보존·문화관광지로 재생, 재단 설립 통한 지속발전
- 상가 공실·터미널 폐업 확산...도시 기반시설 붕괴, 지역 소멸 경고음
 - 단지 상가의 붕괴, 인천 도시 구조의 경고음(인천일보, 2025.11.19.)
 - 인천 아파트 상가 공실·폐업 급증...휴게음식점 폐업 10년간 255.8% 증가로 도시 구조 위기
 - '문 닫는 시골 터미널'...부담 떠안는 지자체 '고심'(KBS, 2025.11.19.)
 - 강원도 시외버스터미널 폐업 확산 지자체 운영 떠맡아 적자 심화·교통 인프라 붕괴 우려
- K팝 수요 폭증 속 공연장 인프라 부족...대형 공연장 보유 지역이 시장 주도
 - [집없는 K팝 종주국] 공연장은 없고 수요만 폭증(아시아경제, 2025.11.17.)
 - 서울 공연장 부족, KSPO돔 1.5만석·고척돔 2만석·잠실 5만석 공사중, K팝 해외매출 1.2조원 대비 인프라 뒤처짐
 - 고양시, 올해 동아시아 공연시장 집어삼켰다(일간경기, 2025.11.17.)
 - 지드래곤·BTS·콜드플레이 등 18회 공연, 70만 관객·109억 수익...고양종합운동장 글로벌 허브 입증
- 공연 압표 전면 금지 추진...한국·영국, 티켓 정가 재판매 불법화로 팬 보호 나서
 - 박수현 의원, 공연 압표 전면 차단법 발의..."정가 초과 재판매 불법화"(전국뉴스, 2025.11.17.)
 - 박수현 의원 공연 압표 근절 위해 정가 초과 재판매 전면 금지 법안 발의
 - 영국,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 '웃돈 재판매' 금지 추진(경남일보, 2025.11.18.)
 - 영국 정부 공연·스포츠 티켓 웃돈 재판매 전면 금지 추진...팬 보호·압표 근절 목표
- 연극 위기 속 2인극 확산...다카라즈카식 수직계열화로 산업 경쟁력 모색
 - 한국이 문화강국이라고? 연극 시장은 고추장 시장보다 작다(프레시안, 2025.11.20.)
 - <연극in> 폐간은 연극 담론의 위기 징후로, 예술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 회복이 시급함을 지적
 - 연극 침체기 돌파구...믿고 보는 '2인극'이 다시 뜬다(한국경제, 2025.11.21.)
 - 연극 침체 속 제작비 부담 적고 몰입도가 높은 2인극이 흥행 대안으로 부상
 - 문화예술지원과 뮤지컬 산업진흥법(15) 제언 - 다카라즈카 모델(더프리뷰, 2025.11.20.)
 - 다카라즈카식 수직계열화와 전속 배우 육성 모델을 도입해 한국 뮤지컬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필요
- 미술진흥법·숏폼 환율효과...미술시장 구조 변화와 100억대 경매 열기
 - 작품 거래가 폭등하면 작가에 보상이 주는 미술진흥법 본격 시행...되레 신진 작가 목 뽕아맨다는데(매일경제, 2025.11.15.)
 - 미술진흥법 2026 화랑업 신고제 및 2027 추급권 도입, 거래 투명성↑, 작가 보상↑, 업계 실효성 의문
 - 미술시장 큰손 에이드리언 청 "숏폼이 새로운 트렌드의 핵심"(동아일보, 2025.11.17.)
 - 에이드리언 청 예술적 스토리텔링 기반 숏폼 콘텐츠로 한국과 글로벌 시장 공략
 - 100억대 작품에 문의 붐물...미술경매 '훈풍'(매일경제, 2025.11.17.)
 - 원화 약세로 해외 컬렉터 문의 급증...야갈 94억 시작, 김환기 최대 157억 도전 등 미술 경매시장 훈풍
 - 갤러리도 '서울 퍼스트'...6%의 반격 시작됐다(머니투데이, 2025.11.21.)
 - 지역 갤러리들이 서울 거점을 늘리며 소외 구조를 깨고 미술시장 판을 확장
 - 미술작가 도요카와, '작가 직판 플랫폼'으로 미술(서울신문, 2025.11.21.)
 - 도요카와가 갤러리 없이 작가 직판 플랫폼을 구축해 미술 유통 구조의 대안을 제시
- AI로 예술가 '기억' 복원 전시 확산...한글 AI 소설로 창작 도구의 미래 실험
 - AI로 복원한 화가들...기억을 복원하는 미술관의 실험(스마트에프엔, 2025.11.18.)
 - AI로 작고한 화가·연구자를 영상 복원해 전시에 활용, 관람 이해는 돕지만 오인 우려도 제기
 - 김초엽 작가 '한글 AI' 소설, 서울역 전시된 이유는(이데일리, 2025.11.19.)
 - 김초엽 작가의 '한글 AI' SF 소설과 AI 기반 작품을 전시해, 글쓰기와 도구의 미래 가능성을 탐구
- 지역 유희공간, 예술 레지던시로 재탄생...창작·교류·지속가능 문화허브 확산
 - 해남군, 40억 투입 예술인 창작 허브 거점 조성(스마트에프엔, 2025.11.18.)
 - 해남군은 40억 투입해 문예어울림센터 건립, 예술인 창작·교류 허브로 육성 예정

- **염전이 예술의 섬이 되다...** 태평염전, 국제 아트 레지던시로 변신(newstap, 2025.11.18.)
 - 태평염전은 국제 아트 레지던시 운영으로 예술·환경·지역문화 융합 창작 허브로 성장
- **지속 가능한 예술 창작 레지던시, 새집 짓기**(경남일보, 2025.11.18.)
 - 피렌체 누메로벤티 레지던시 예술·숙박 결합해 창작자·지역 장인 협업으로 창의 생태계 확장
- **지역 축제 흥행에도 예산 수도권 집중으로 성과와 지역성 불균형 심화**
 - 혁신이 꽃피운 축제, 축제가 만든 변화(대한투데이, 2025.11.19.)
 - 구미시 라면축제 등 연간 축제 100만 명 유치...방문객 급증 속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 과제로 부상
 - 전주세계소리축제 인력용역비, 수도권에 76%...‘지역성 약화’ 구조 확인(전문일보, 2025.11.16.)
 - 전주세계소리축제 인력용역비 76.3%가 수도권에 집행돼 지역성 약화 논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시의 섬’ 오명...AI·ICT 결합 K-도서관은 미래형 문화공간 부상**
 - ‘도시의 섬’ 오명 10년...“대표 콘텐츠 부재”(KBS, 2025.11.19.)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년 대중성 부족 지역 소통 미흡으로 ‘도시의 섬’ 오명
 - 온몸으로 체감 첨단 복합문화공간 ‘K-도서관’의 변신(경상일보, 2025.11.17.)
 - 공공도서관 AI·ICT 융합 ‘실감서재·체험관’ 운영...디지털·고전 결합 미래형 독서·문화공간 구현
- **김해·강원, 로컬 문화자산을 K-콘텐츠로...지역 문화활성화 새 동력**
 - 김해 ‘가꿈 로컬 아트마켓’ 지역 문화 활성화(경남일보, 2025.11.17.)
 - 김해 ‘가꿈 로컬 아트마켓’, 지역 작가 30여명 참여해 전시·판매로 문화 활성화
 - “지역이 곧 글로벌” K-콘텐츠 시대의 새로운 강자 ‘강원도’(G1방송, 2025.11.18.)
 - 강원도는 미래유산제도 도입으로 지역 자산을 K-콘텐츠화해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필요
- **21년 시민 문화공간 ‘오!재미동’ 존치 요구 속 여의도 지하벙커, 전시로 재개관·재탄생 추진**
 - 21년간 사랑받은 시민의 문화공간 ‘오! 재미동’ 철거 반대, 시민들이 나섰다(데일리아트, 2025.11.18.)
 - 오!재미동(충무로영상센터) 철거 반대, 시민 1,900명 연서명...문화공간 존치 운영 주체 이관 요구
 - 다시 열린 ‘여의도 지하벙커’...세계적 작가 전시 ‘갯츠 앤 독스’ 개최(서울시, 2025.11.20.)
 - 여의도 지하벙커 11.21~26.5.14 안 아르튀스-베르트랑 <갯츠 앤 독스> 전시 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 **서울대·관악구 예술영재 육성...경기·사천, 예술교육 인프라·거점 확충 시급**
 - 관악구 서울대와 협력해 ‘문화 예술 영재’ 양성한다(아시아뉴스통신, 2025.11.19.)
 - 서울대·관악구 2013년부터 영재교육원 운영...13기까지 614명 수료·51명 올해 졸업
 - “부족한 경기문화예술교육 공간·인력, 공공자원 연계·지역 특성으로 해결해야”(기호일보, 2025.11.19.)
 - 경기문화예술교육 공간·인력 부족 심각...공공자원 연계·지역 특성 반영한 개선 필요
 - “예술교육을 도시전략으로...민관 잇는 종합 거점 절실”(뉴스사천, 2025.11.21.)
 - 사천시가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을 공개하고, 전담 지원센터 설립과 민관 협력 거점 구축 필요
- **서울문화재단 정책자문위 출범...예술·AI·법률 등 25명 참여해 미래 전략 논의**
 - “서울의 문화를 다양한 시선으로 만들어 갑니다” 서울문화재단 정책자문위원회 출범(매일일보, 2025.11.18.)
 - 서울문화재단 정책자문위 출범...예술·AI·법률 등 25명 참여해 미래 전략 논의
- **세종시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예방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 조례안 통과**
 -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예방 의무화...세종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통과(뉴스1, 2025.11.18.)
 - 세종시의회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예방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충남문화관광재단, 아트링·팔찌 후원 캠페인으로 모금 5억 돌파**
 - “충남 문화예술 후원하고 예쁜 반지·팔찌 받으세요”(금강일보, 2025.11.16.)
 - 충남문화관광재단 아트링·팔찌 제공하며 후원금 5억2천만 원(343%↑) 성과
- **민간 경력·고졸 배제 잇단 시정...인권위, 고용 채용 차별 구조 개선 촉구**
 - 호봉 산정 시 민간 경력 배제한 지자체...인권위 “차별”(뉴스1, 2025.11.18.)
 - 지자체는 동일 업무 민간 경력 인정 배제는 차별, 인권위 규정 개정·재산정 권고
 - 청년 일자리라면서 고졸은 안돼?...대학생만 뽑더니, 결국(이데일리, 2025.11.20.)
 - 인권위 청년 일자리 120개 조사→19곳 대학생만 대상 시정 권고·39곳 확대 완료
- **30대 가구주 ‘쉬었음’ 급증...청년고용률 하락, 노동시장 경고등**
 - 30대 가구주 ‘쉬었음’ 인구 증가 심상치 않다”(매일노동뉴스, 2025.11.21.)
 - 30대 가구주 쉬었음 18.8만명, 전체 33.4만명·청년고용률 44.6%로 하락
- **가치·관계 소비 확산...비건·친환경·초개인화 뷰티로 소비지형 변화**
 - 올해 ‘관계중심 프리미엄·가치 소비’ 투영...개인화도 뚜렷(오늘경제, 2025.11.20.)
 - 2025년 소비는 가격보다 가치·관계를 중시하며 비건·친환경, 초개인화 뷰티 소비가 확대